

이름 김수경

## 1. 파견대학 관련

파견대학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11. 9. 18 ~ 2012. 6. 8
귀국여부	네
수강과목(2011 Fall) 및 과목별 수강평가	<p>1. <i>Level1 Chinese</i> 월-금 한 시간씩 이루어지는 중국어 수업으로, instructor도 다양하고 매일매일 수강하기 때문에 외국어 특히 회화를 공부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수업</p> <p>2. <i>Jazz Dance</i> 매주 토요일,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신청한 과목이지만, 교수님께서 학생들 개별 기량에 맞게 자유로운 방식으로 Jazz를 추는 법 보다, 즐기는 법을 가르쳐 주심</p> <p>3. <i>Introduction to US and International health care system'</i> 예상치 못하게 수업 중간에 주어지는 topic으로 그룹토론을 진행해서 애를 많이 먹었던 과목이지만 교수님의 지식과 열정이 높으시고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들도 대학생, 대학원생, 보건업계 종사자 등 다양하여 세미나 같은 느낌의 수업</p> <p>4. <i>Public health</i> Ohio state university의 Public health 단과대학의 입문과정으로써 공중보건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부분을 주 내용으로 하며 교수님께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의 분위기를 조성하시는 수업</p>
수강과목(2012 winter) 및 과목별 수강평가	<p>1. <i>Communication &amp; E-Health</i> 보건분야의 떠오르는 블루칩인 Internet 기술을 이용해서 존재하고 있는 계층, 인종 별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고,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강조하는 수업으로 내 전공인 보건분야가 communication 전공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된 수업</p> <p>2. <i>Medical sociology</i> 가장 듣고 싶었던 수업으로, sociology코스에서도 심화과정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이해하려면 매주 두 번씩 교수님이 준비하신 extra reading (주로 논문)과 textbook을 완전히 습득해야해서 벅차기도 했지만, 그 방대한 reading속에서 진짜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수업</p> <p>3. <i>Political problems in contemporary world</i></p>

	동시대에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다루었던 수업으로 경제, 정치분야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 어렵기도 했지만 사회보험/의료보험 분야 역시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되었던 수업
수강과목(2012 Spring) 및 과목별 수강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Yoga 지나치게 어려운 동작을 강요하기 보단 항상 자기 몸의 condition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던 선생님의 가르침이 인상 깊었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수업</li> <li>2. Introduction to China and Japan 같은 아시아 국가로써 서양에서 본 두 국가에 대한 이미지, 그들이 해석하는 두 국가의 역사, 철학 등을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로웠던 수업</li> <li>3. Developmental Studies 3<sup>rd</sup> world 국가들의 나아갈 길에 대해 주어지는 다양한 주제들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항상 학생들에게 하나의 입장을 정하고 그 입장을 고수하기 위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강조하셨는데 내 스스로의 의견을 생각해보는 것도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역시 흥미로웠던 수업</li> </ol>
Tuition 외 지출한 비용	<i>\$702 per quarter*3</i> <i>(COTA bus service fee+Student activity fee+Student Union facility fee+Recreational fee+General fee+International health insurance fee)</i>

## 2. 생활전반 관련

숙소	외부 아파트 (University Village)-3bed room
숙소비용	\$300 per month
숙소평가	주로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OSU까지 무료 셔틀을 운행해서 큰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다만 계약이 1년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귀국 후 방학기간 동안 sublease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식사	직접 요리
식사비용	
식사평가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보험	Ohio state university student health insurance

한달 생활비(대략)	집세, 식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많은 생활비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제공하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 OSU의 학생을 학생증을 통해 Columbus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비도 들지 않고, 학기초에 교과서 비가 가장 큰 지출이 될 수 있는데, 과목별로, 교과서 별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

3. 교환학생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이것만 알고 갔어도 그런 시행 착오는 피할 수 있었을텐데

1. 처음에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off campus housing의 이점도 많이 있다. 가격 면에서 훨씬 ( 많으면 세 네 배정도) 저렴하고, 학교 울타리 안을 벗어나서 학교 밖으로도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것 같다. 첫 학기를 기숙사에서 보내고, 기회가 된다면 off campus를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2. 미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비록 보험에 가입되었다 해도) 신중해야 하고 되도록이면 학교 내에 있는 health care center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3. (Ohio만 해당), IFI라는 기독교 봉사회가 international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공항 pick up service, 거주지 마련, 임시 홈스테이 제공, 중고 가구 바자회, conversation partner, field trip 등 기독교 단체라고 해서 종교 색을 가지는 부분은 전혀 없고, 내 생각엔 OSU에 국제부서보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
4. 서점에서 교과서를 rent할 수 있는데 학기 중에 사용하고 학기 말에 반납하는 형식으로 기존 교과서 값의 40%~50%정도로 그다지 싼 편은 아니지만, 귀국 할 때 모든 책을 가지고 올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교과서를 훑어 보고, 소장가치가 있는 지 없는 지를 판단해서 사거나, 빌리거나 하는 편이 효율적인 것 같다. 또는 craigs list(online)에서 중고 책을 구입할 수 있는데 경험상 craigs list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했다.
5. state ID를 발급받으면 여권 대용으로 본인신분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하기에 간편하다.
6. 수강 신청 시에 syllabus를 꼼꼼히 보고 과목별로 시험이 너무 겹쳐있지 않은지, 과제 같은 경우 도전 가능한 수준인지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rate my professor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면 학교별, 교수별, 수강과목별 학생들의 review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한다.

4. 결과보고서 (자유형식) : 글자크기 10, A4 1장 이상

-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9 개월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서, 한국에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교환학생 결과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것도 사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 넓은 미국에서, 우리나라 남한의 크기보다도 큰, 그렇지만 시골에 속하는 전통적 백인사회 Ohio 주에서 보낸 시간들,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쉽기만 했던 기간이 아니었지만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탄 순간 느꼈다. '아 나 정말 엄청난 경험을 했구나' 라고 말이다. 교환 학생 가기 전, 설레임을 넘어서는 왠지 모를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나에게 한 외국인 선생님이 말했었다. "넌 앞으로 9개월간 한국에 있는 것보다 몇 배의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거고, 말이나 글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낄 거야" 그 당시에는 그저 막연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조금은 진부한 말이라고도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공감하는 말이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글재주도 없는 나에게 이런 보고서를 쓰는 것은 조금 부담이기도 하다. 어쨌든 나는 이 보고서를 언어(영어), 학업 그리고 여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적어내려 가려고 한다.

먼저 언어, 정확히 영어! 나는 교환학생 기간 동안 영어가 정말 일취월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편은 아니었다. 교환학생을 나가는 친구들은 모두 자기 만의 우선순위 목표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영어를 완전히 정복하겠다 또는 전공 지식을 열심히 쌓아보겠다 아니면 외국인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겠다? 등이 될 수 있다. 내 경우에는 새롭고 자유로운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 간단히 말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조금은 애매모호한 목적으로 계획한 9개월이었다. 원래 나는 speaking 이 가장 약했고 특히 긴장을 하면 쉬운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는 편이라서 이미 어려움을 예상하고 갔었다. 첫 달에는 미국인과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커피를 주문하는 것, 길을 물어보는 것 심지어 교수님을 찾아가서 수업허가서를 받는 것 등 그 몇 마디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뿌듯함에 붕 뜬 상태로 지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학교에 적응이 된다고 느꼈을 때쯤, 나의 영어실력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그룹별 토론, 프로젝트 과제 때는 내가 다른 조원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눅이 들어서 영어를 한 마디 하는 것에도 겁을 잔뜩 먹었었다. 영어에 겁을 먹었다는 건, 헤어나올 수 없는 엄청난 늪에 빠졌다는 이야기 이다. 여러 유명 영어 강사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영어는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도 자신감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사실 실생활에 있어서도 미국인들이 특히 외국사람의 억양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인들은 발음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B/V, R/L, F/P 같은 발음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지 않으면 아예 이해하지 못한다. 때문에 온갖 노력을 다해 native speaker 처럼 적이라도 해서 발음을 해야 한다. 자신감 그리고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수업시간, 친구들과의 대화, 그저 마트를 가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생생한 Native English고 미국드라마를 이용할 수도 있었다. 일단은 내 어색한 영어 발음을 고치려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듣고 중얼거렸고 자신감을 완벽하게 획득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갑자기 길을 가다 어떤 사람이 영어로 말을 걸어와도 긴장하지 않고 영어가 아닌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솔직하게 지금 다시 Toefl이나 Toeic같은 영어 테스트를 보면 점수는 더 떨어질 것 같지만, 외국인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문장은 자연스레 말할 수 있는 지금의 상태가 나는 더 만족스럽다.

두 번째, 학업부분이다. 학업부분에서 나는 OSU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수진, 교수님들의 실력과 열정,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큰 점수를 주고 싶고, 다시 미국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OSU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정도이다. 이 세상의 모든 학생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 시험에 지쳐있고 나 역시 예외 없이 내가 끝마쳐야 할 과제, 시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많다

고 생각하며 지냈었다. 특히 OSU는 쿼터제라서 3쿼터기간 동안 10주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가 항상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시스템이라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개강 첫 주 빠른 항상 시험기간 이다라고 말할 정도였고 나중엔 그냥 할 과제랑 치를 시험이 항상 있는 게 익숙해지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교수님 스타일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운 좋게도 내가 만났던 교수님들은 대부분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셨는데 일주일에 두 번인 수업 시간마다 미리 온라인 학내 가상 사이트에 수업내용과 연관된 최신 기사, 논문을 업데이트 시켜놓으시고, 거의 2~3주에 한 번씩 내는 페이퍼를 꼼꼼히 분석해서 피드백을 주셨다. 또 학생 한명 한명 당 개인 면담도 전공별이 아닌 수업별로 이루어진다. 학생의 수, 교수님들이 담당하는 많은 강의 수를 생각하고 그들이 해야 하는 개인연구까지 고려하면 교수님 입장에서든 상당한 시간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paper guide line이 세세한 부분까지 제시되어 있고(예를 들어 참고문헌 5~10개 이상), paper 형식 (citation mark, reference list etc.)을 맞추기만 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과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같은 주제에 상반 되는 저명한 학자의 팽팽한 두 논문을 비교 분석 한다든지, 지역 사회(Columbus)의 특성을 고려해서 병원을 현실적으로 어느 곳에 지을 것인가를 결정 한다 던지 또는 리서치를 바탕으로 실질적 모형을 만들어 내보기 등 단순히 정보를 찾아서 발표하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가장 요구하는 형식이 많았다. 아쉬웠던 점은 항상 due date에 간신히 맞추어서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백 퍼센트를 쏟아붓지 못했던 점이다. 전체적으로 학교의 분위기도 학구적이고, 학교에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서관이나 tutor service 또는 외국학생들을 위한 writing center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다. 무엇보다 넓은 캠퍼스와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학교의 탁 트인 풍경을 보고 있으면 오랜 시간 도서관에 있어도 그렇게 지치지 않았던 것 같다.

세 번째로 여행, 나는 보통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게 한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해 용돈을 벌 수 있었고 마침내는 돈을 모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미국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업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기도 했었지만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 여행을 혼자 할 생각도 있었고, 친구와 같이 할 생각도 있었지만 결국 내가 택한 것은 Trek America tour이다. 장소 별, 기간 별로 고를 수 있는,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유럽 여행 프로그램으로 각국에서 온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그룹에 전문 tour leader가 함께 하며 자동차로 함께 여행하고 텐트에서 잠을 자는 캠핑 형식이다. 나는 3주 동안 영국, 덴마크, 스위스, 싱가포르에서 온 10명의 친구들과 south western지역 4개의 주 California, Arizona, Nevada, Utah의 여러 도시와 각종 National Park를 여행했었다. 사실 어렵게 번 돈을 모두 투자 해야 하는 여행이어서 망설이기도 했고 여행의 규모를 줄여서 Mac book을 사거나 브랜드의 가방, 옷을 사려는 생각도 있었고 낯선 그룹 멤버들과 또다시 적응을 하고 영어로 손짓 발짓을 하며 지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텐트에서 지내면서 고생할 것도 눈에 보였다. 그런데 내 교환학생기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나는 아마도 마지막 도전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여행이라기 보단 도전의 의미로 시작한 3주는 사실 아직도 후유증에서 깨어나지 못할 만큼 놀라웠다. 텐트를 순식간에 똑딱 만들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게임하고, 같이 의논해서 벌레와 전쟁을 하며 저녁식사를 만들고, 아스팔트 도로 위에 누워서 생에 첫 별똥별을 두 개나 보고, 사막도 걸어보고,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던 national park를 직접 걸어서

정상까지 올라가 보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속을 걸었던 일, 텐트도 없이 흙 위에 누워서 잤던 것, 새벽같이 일어나 침낭을 몸에 감고 보던 일출, Las Vegas 같은 큰 도시에선 땀에 찌들고 하이킹해서 더러워진 운동화는 온데 간데 없이 dress up하고 열었던 파티, 마지막으로 good bye가 아닌 see ya로 헤어졌던 그룹 멤버들까지.

교환학생 생활을 마무리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준비를 할 때쯤 친구들이 나에게 여러 번 물었고, 나 스스로는 나에게 매번 물었었던 질문이 있다. 미국에 와서 어떤 걸 얻은 걸까? 라는 질문이다. 가시적으로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낯설고 외로운 환경에서 얽매이는 것 없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지냈었고 그로 인해 내 자신에게 실망해서 투덜대다가도, 잘했다고 다독였다가도 하는 반복된 오르내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 자신과 좀 가까워졌고 나를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겼다. 어떻게 보면 싱겁기도 한, 내세울것 없는 결과지만 내가 얻고자 했었던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후회스러운 부분이 더 많지만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과분한 내용들로 가득 찼 기간이었던 것 같다. 마치 9개월의 긴 여행을 마친 느낌이고 한국에 돌아오니, 현실이 어색한 기분이지만 다시 또 새롭게 적응하고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하는 기분으로 지낼 것이다. 이젠 두려운 것에 도전할 때의 스타일을 이젠 나도 모르게 찾고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를 준 내 모교 순천향대학교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다 ☺